



# 서양음악과의 접목 시도... 불교음악 수준 한 단계 높여

문화 **오름** 민족음악관현악단 단장 김회경 작곡가

“한국불교음악이 발전하려면 제도적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찰 지휘자들은 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스님들부터 인식을 바꿔 사찰법회를 현대화하고 음악인재를 양성해 불교음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교음악이 살아나고 사찰법회가 활성화되면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졸라 동네 굿 구경을 나가면 굿가락에 도취되어 밤을 샜 정도였죠. 아마 제 정서 속에 본능적으로 우리 음악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었던 거 같아요. 대학 시절에는 서양작곡을 전공하면서 국악과 수업을 수강했어요. 당시 지휘자 박범훈 교수님(前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국악과 교수로 막 부임할 즈음이었죠. 이후 대학원을

를 책임하는 것은 물론, 1992년 조계사어머니합창단 지휘를 시작으로 불광사 합창단 지휘, 조계사 음악감독 등을 맡으며 불교계 합창단과도 꾸준히 인연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교성곡 ‘아! 원효’를 작곡, 그 중 일부를 11월 4일 동국대 한국음악과 개설 20주년, 개교 108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초연한 바 있다.

### 교성곡 등 다수 찬불가 작곡

### 1992년 조계사서 합창 지휘 시작

### ‘아! 원효’... 동국대 행사서 발표

### 11월 27일 대구서 ‘회당’ 연주

김 씨는 교성곡 ‘혜조’ ‘지장경’ ‘회당’ ‘아! 원효’ 등은 물론 ‘연꽃피어 오리라’ ‘제행무상’ ‘구름 걷힌 달처럼’ ‘보리심’ 등 수많은 찬불가를 작곡하며 한국불교음악을 이끌어왔다. 중앙대서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국악과 수업을 수강할 정도로 우리 소리에 매료돼 이후 한국음악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며 그의 음악세계는 한층 풍성해졌다.

한국음악과로 진학하게 되면서 박 교수님과는 각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음악제 당선, 난파음악제 최우수상, 동아음악콩쿠르 입상, KBS 서울국악대경연 창작부문 입상 등을 통해 음악적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오름 민족음악관현악단 창단,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최근 공연을 마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 힐링콘서트 ‘더 나눔’의 지휘 모습.

# 중생 분별 초월한 해탈의 경계

백양사와 쌍계루는 고려 이후 호남 최고의 명승지로 자리하고 있다. 이색과 정조전이 쓴 기문과 정몽주가 지은 시가 그 공간을 형성했다. 후대의 시인들이 정몽주의 운자를 빌어 시정을 드러내고, 이색의 기문을 칭송하여 절과 누각의 승경을 찬탄한 것이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46 장성 백양사 ㉠



단풍이 절정에 이른 백양사 경내의 모습이 아름답다.

경지가 바로 무심 속의 편안함인 것이다. 그런 경지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떨떨 처럼 갈린다’고 했으니 중생적 분별을 초월한 해탈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16세기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백광훈(白光勳) 1537~1582)도 19세기의 기정진(奇正鎭 1798~1879)도 쌍계루에서 밝은 세상을 꿈꾸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중노비석괴명승(重勞飛錫錫名僧) 라성을지백부능(懶性兀知百不能) 천리구암당파승(千里舊庵雙派勝) 일루신영기인증(一樓新詠幾人增) 운귀효동봉만습(雲歸曉洞峯巒濕) 로세추단수목경(露洗秋壇水木澄) 진경미공심어숙(眞境未窮心已熟) 석란명월몽선승(石欄明月夢先登)

무던 걸음으로 애쓰니 명승이 부끄럽고 게으른 성품이 모남에 온갖 일 미숙하네. 천리의 옛 암자는 두 물줄기에 빼어난데 한 누대의 새 글을 몇 명이나 보냈던가. 구름이 새벽동구에 개니 봉우리가 맑고, 이슬이 가을 절 씻김에 물과 나무 맑다오. 진경을 다하지 못함에 마음이 타는데 돌 끝에 밝은 달이 먼저가길 꿈꾸네.

백광훈은 이 시를 성진(性眞)이라는 스님에게 주기 위해 지었다. 제목의 원문이 ‘차쌍계루에 중성진사(次雙溪樓韻 贈性眞師)’(속봉집)제1권이다. 앞의 수련과 풍경은 묘사하며 ‘무심함 속에 일마다 편안함’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는 신선의 경지라기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다. 선불교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있다. 미련의 구질이 그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등차담정수승(分燈借榻定誰僧) 왕사암무입몽능(往事庵樓入夢能) 황조명변쌍안함(黃鳥鳴邊雙岸合) 단풍총리일루증(丹楓叢里一樓增) 정의설벽운두축(正疑雪壁雲頭矗) 경득빙계월하정(更得·瑛月下澄) 인세적염료주학(人世漸如逐桂鶴) 부러리부석년등(扶藜非復昔年登)

등불과 책상 밀린 공부로 누가 스님인가 암자와 누대의 지난일이 꿈속에 흰하네. 피꼬리 울음 속에 양 언덕 합해지고 단풍 숲 곁에 누대 하나 더해 있다오. 눈길 비랑인가 함에 구름 끝은 뾰족한데 다시 얼음결이 오지 달빛 받아 맑음이야. 세상이 철차 기묘함만을 숭상하니 지팡이 짚고도 작년처럼 오르지 못하네.

전북 순창 출신의 기정진은 조선 후기 학계에 주목받을 업적을 남긴 학자다. 그가 쌍계루에 올라 정몽주의 운자를 빌어 쓴 이 시 ‘차쌍계루포용운’(노사집)제2권)도 다소 냉소적인 어투로 시를 열고 절과 누각의 풍경을 통해 새로운 경지로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련의 ‘세상이 점차 기묘함을 숭상하니’ 라는 대목은 유학자의 시각에서 불교나 천주교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기정진의 시대는 이미 20세기적 격변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병인양요를 보고 쇠국적인 태세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 상소가 후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큰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큰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나 공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중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경단 광로 82-6(경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 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이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談話),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번재에 지유자재 했던 유마경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번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경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별>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공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031-534-3373